

지역 매 아리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0일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투자진흥기금의 지급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김제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그 외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외부 전문가와 기업인 10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추진하고 투자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논의와 지평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2개 기업에 대한 분양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분양가보조금」은 지평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의 10% ~ 20%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큰 몫을 해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42개사에게 지원 완료하였다.

분양가 보조금 신청한 A기업의 대표는 "김제 지평산업단지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산업단지에는 없는 분양가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어 솔직히 김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원책도 발굴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캠페인

완주군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으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소양면 소재지에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뤄지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요지역에서 현수막, 피켓 홍보로 이뤄졌다.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이 있다.

캠페인에서는 군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군민들의 안전의식개선을 꾀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은 지난 7월부터 용진, 봉동, 삼례, 고산에서 매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불법주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공공급식센터, 조직 역량 강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앞두고 공급확대 대비 운영체신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박봉산)가 완주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앞두고 조직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1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최근 CSM아카데미 전항 원장을 초빙해 소속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팀워크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급확대를 대비한 운영체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직원 팀워크 조직력을

강화하고 일사 분란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강조됐다.

강의에 나선 전항 원장은 "팀워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원 간 이해와 포용의 노력이 필요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만 여섯 차례에 걸쳐 푸드플랜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마인드 교육,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수확 후 저장 기술, 현장견학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박봉산 센터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에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좋은 팀워크를 이길 수 없는 만큼, 임직원 모두 일타의 강력한 단결력으로 변화와 도전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어려웠지만 푸짐했던 그 시절 대폿집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대폿집 기획 전시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1960년대 대폿집을 연출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

21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1960~70년대 대폿집을 연출한 '한잔하세,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기획전시개 내년 2월 말까지 진행

한다고 밝혔다.

대폿집은 큰 바가지에 막걸리를 가득 담아 팔았던 곳으로,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술 문화를 대표했던 주점이다.

대부분 대폿집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식탁, 우그리진 주전자와 낡

은 수저통, 벽지삼아 덕지덕지 발라낸 신문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이주머니의 맛살스러운 음식솜씨, 혈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저렴한, 푸근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한잔하세,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전시는 이러한 사뭇뻐 보이는 대폿집을 주제로 화려한 유행가 가락 아래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과 대폿집 이모저모를 포토존으로 실감나게 연출했다. 또한 <세월이 가면>노래가 즉석에서 작사·작곡되었던 서울 명동의 은성대폿집, 재건주점, 실비집 등 청계천에 즐비했던 대폿집 골목 등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진자료와 유품들도 전시되고 있다.

전영선 군 문화관광과장은 "당시 대폿집은 고단했던 하루 일과를 마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오아시스 같았던 곳이었다"며 "추억과 재미를 담은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21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1960~70년대 대폿집을 연출한 '한잔하세,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기획전시개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김제지점, 이웃 사랑 실천 백미 기탁

김제시 공덕면(면장 김정관)은 21일 전북은행 김제지점(지점장 고찬배)에서 추위지는 겨울, 공덕면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50만원 상당의 10kg 백미 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김제지점은 평소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많이 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찬배 김제지점장은 "주민들이 저희 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의

된 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공덕면장은 "후원을 통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지난 20일 개최된 제10회 한국지역발전대상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제, 한국지역발전대상 단체 부문 대상

전북 최초 노인일자리 담당 신설 일자리 제공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난 20일 개최된 제10회 한국지역발전대상 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지역발전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10회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는 정책·지역·사회·봉사·교육·직능·단체·문화 등 모두 8개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제시는 지난 조직 개편시 전라북도 최초

로 노인일자리 담당을 신설하여 전문성, 책임성을 통한 적극적 행정을 시행하고, 김제형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김제시 만 65세 인구대비 18%를 차지하는 4,018명이 참여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창출 및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연대 확대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현실감 있는 노인 정책으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안착에 기여한 공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김제 만들기를 위해 노인 일자리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하반기 신속 재정집행 총력

김제시는 최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전 부시장의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전 실과소장이 모두 참석해 신속집행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예산현액 1억 이상의 사업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에 대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이 그 동안의 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내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악화 등으로 민간의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집행 요구에 발맞춰 실시된 보고회에서 허전 부시장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사업별로 면밀히 점검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부서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는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재정집행 추진체계 운영, 주 1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 부서별 1억원 이상 부진사업 관리, 선급 최대 집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입찰 등 하반기 재정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12월말까지 집행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Imsh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a large image of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of a cheese farm with a large building.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별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